

하이쿠·와카 운율을 통해서 본 일본인의 언어생활*

남 이 숙**

(e-mail: ysnam@kunsan.ac.kr)

目 次

1. 첫머리에
 2. 전통시가 운율 수용의 양상
 - 2-1. 속담 속의 전통시가 운율
 - 2-2 의례 속의 와카
 - 2-3. 知識과 교훈가의 운율
 - 2-4. 중세의 가요
 - 2-5. 근대의 唱歌와 계몽가
 3. 끝머리에
-

1. 첫머리에

흔히들 일본인은 운율의 노예라고 한다. 단가의 5·7·5·7·7이나 하이쿠의 5·7·5의 형식에 대단한 집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5·7이나 7·5조의 운율이 이처럼 위력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고대로부터 일본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와카나 하이쿠의 운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인의 언어생활을 엿볼 수 있는 속담이나 고사성어 등에 이러한 운율이 어떻게 침투되고 있는지 이에 관한 분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와카나 하이쿠 중에서 문학적 요소가 강하지 않은 시가를 통해서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군산대학교 자체 학술공모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군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도 이들이 일본인의 언어생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실제로 일본의 전통시가인 와카는 단순한 문예품의 역할을 넘어 통과외레나 지식의 전달, 교훈가 등 생활문학으로서의 역할을 특특히 해내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5·7이나 7·5조의 운율이 일본인의 생활 속에 어떤 형태로 뿌리내리고 <야마토 우타>라고 일컬어지는 와카가 어떻게 일본 문화의 근간을 이루었고, 일본인의 언어생활에 이 운율이 어떤 과정으로 근대 이후에 이르러서까지 일본인의 언어생활 속으로 침투되었는지 규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전통시가 운율 수용의 양상

2-1. 속담 속의 전통시가 운율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의 하이쿠집을 보면 「母の詞自ら句になりて」라는 서문과 함께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¹⁾

毎年よ 彼岸の入りに寒いのは(5·7·5)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마치 하이쿠와 같다. 실제로 일본인들이 보통의 대화 속에 인용하는 짧은 문장 속에 이와 같이 5·7조의 7·5조의 운율을 가진 표현들이 상당수 있다.

警視庁에서 꽃말에 써붙인 경고문에서도 ‘この土手に登るべからず’와 같이 일부러 5·7조의 고어적 표현을 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표어나 광고문에서도 의도적으로 5·7·5조 나아가 7·5조나 7·7조에 맞춰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접할 수 있다.²⁾

手を貸そうちっちな子供とお年寄
大地震ドッと沖鳴りそれ津波
うまい肴で 今夜いっぱい
楽しいから 続けられる
おしゃれな お父さんって うれしいね

1) 池田弥三郎編(1976) 『言葉の遊びと芸術』 大修館書店 p.215

2) 2008년 오사카에서 얻은 전단지 문구를 참조하였음.

뿐만 아니라 일본 속담인 <ことわざ> 속에도 5·7 이나 7·5조의 운율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속담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민중의 지혜와 가치관이 응축되어 널리 전해 내려오는 민간 격언이다. 말하자면 속담은 시공을 초월해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 독특한 정서와 의식을 담고 있는 언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인의 가치관과 정서가 녹아 들어가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된 언어인 속담을 살펴보는 일은 일본인의 언어생활을 살펴보는데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먼저 7자로 된 음수율의 속담이 상당수 있음에 주목하고 싶다.

- 尻に目薬 (7)
- 急がば回れ(7)
- 花より 団子 (7)
- 病(やまい)は 氣から (7)

음으로 소리 내어 발음해보면 안정감이 있고 매우 분명하게 뜻을 전달해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밖에도 <藪から棒><嘘も 方便> <氏より育ち> 등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한국어 속담에도 이처럼 간결한 리듬의 속담이 상당수 존재한다.

- 꿀 먹은 병어리
- 긴 병에 효자 없다
- 늙은이 아이 된다
- 옥에도 티가 있다

간결한 리듬이 의미를 명료하게 하고 호소력 있어 전달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표현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7자음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5·7조로 된 속담에는 우리말에도 <말만 잘 하면 천 냥 빚도 갚는다> <가는 손님은 뒤꼭지가 예쁘다 > <서울 소식은 시골 가서 들어라>가 있는데 일본어에서도 이러한 풍의 속담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 せいではことを仕損じる(5·7)
- 石橋も叩いて渡る(5·7)
- 朝起きは 三文の徳(5·7)

瓜の蔓になすびはならぬ(5・7)

앞 문장이 짧고 뒤 문장이 길다는 특징이 있으며, 대체로 앞 절은 가설이나 조건을 제시하고 뒤 절에서 확답을 제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7·5조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마음이 화합하면 부처도 된다> <상시에 먹은 마음 꿈에도 있다> 등의 속담이 있는데, 일본어의 경우에도 이러한 음수율을 지닌 속담이 상당수 있다.

塵も積もれば 山となる(7・5)

終わりよければ すべてよし(7・5)

のど元過ぎれば 熱さ忘るる(7・5)

犬も歩けば 棒にあたる(7・5)

能ある鷹は爪隠す(7・5)

이 경우에도 앞 절에 가설이나 조건이 제시되고 뒤 절에서 경험에 의거하면 반드시 그러하다는 교훈을 서술하는 뜻이 담겨 있다.

그밖에도 다음과 같이 선인들의 경험이나 지혜가 담긴 경구적 의미를 많이 검색할 수가 있다.

武士は食わねど 高楊子(7・5)

親はなくても子は育つ(7・5)

金の切目が 縁の切目(7・5)

かわいい子には旅をさせよ (7・5)

선행연구에 의하면 7·5조는 7음절 뒤에 5음절이 따라오는 경우로 장음절이 단음절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끄럽고 안정된 운율을 보여주는 반면, 5·7조의 경우는 단음절이 장음절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따라서 긴장감이 조성된다고 한다.³⁾ 와카의 구기레(句切)를 설명하는 이론이긴 하지만, 잘 따져보면 이상의 속담의 운율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한 논리라고 생각된다.

7·7조의 음수율을 가진 속담도 많이 있다.

3) 吉田精一外(1966) 座談会「歌のしらべと日本人のこころ」『国文学解釈と鑑賞』至文堂 p.12
江湖山恒明(1983)「古今集·新古今集の解釈方法」『国文学解釈と鑑賞』至文堂 p.139-144

ならぬ堪忍するが堪忍(7・7)

無理が通れば道理引っ込む(7・7)

人のふり見て我がふり直せ(7・7)

이상으로 하이쿠나 와카의 운율과 관계가 있는 5·7이나 7·5조의 운율, 5·7·5나 7·7조의 운율로 되어 있는 경우를 들었지만 전부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馬子にも衣装」와 같은 4·4조, 「明日は明日の風が吹く」와 같은 3·3·5조나 「雨降って地固まる」와 같은 5·5조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패턴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간결한 정형구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일정한 운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박단향씨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속담은 이 중에서도 5·7이나 7·5조, 7·7조의 운율이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한국은 한국의 전통시가의 운율인 3·4조, 4·4조, 3·3조의 형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하고 있다. 4) 즉 양국의 속담 역시 전통시가의 리듬을 그 운율에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藤井乙男씨는 속담의 이와 같은 특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우 시사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口調よくして伝唱しやすきものは記憶に便なれば,随って弘通する速かなり。諺に詩歌の体制を取るもの多きは是がためのみ。邦諺には七五、五七、七七、七五五などの声津に従うもの多し。5)

속담과 같이 운율이나 어감이 좋아 구전되기 쉬운 말은 기억하기 편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속담에 와카나 하이쿠와 같은 전통시가의 운율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은 그 때문이며 그래서 일본어 속담에는 5·7이나 7·5조, 7·7조의 운율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속담이 오랫동안 구전되고 사랑받고 있는 이유를 반드시 운율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속담의 표현법들을 분석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설득하기 위해 많은 수사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감각을 자극시키기 위해, 「聞いて極楽見て地獄」와 같이 대조법을 사

4) 朴丹香 <庶民文芸としての「諺」研究> 久留米大学大学院比較文学研究科 박사학위논문 p.389 참고. 양국의 속담 중 비교적 잘 알려진 속담을 500개씩 선정하여 정형의 음수율을 분석하고 있다.

5) 藤井乙男(1978) 『諺の研究』 講談社 p.41

용하고 「なくて七 (なな) くせ」 「思えば思わるる」 와 같이 두운을 반복하기도 하고 「多芸は無芸」 「弱)目に祟)目」 와 같이 각운을 맞추는 반복법을 쓰기도 하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籠で水汲む・こんにやくで石垣を築く・魚に芸を教える」 와 같은 과장법을 사용하고 그 밖에 역설법·비유법 등 강렬한 어감과 함께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속담에는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여러 가지 수사법이 동원되고 그 나라 풍토를 지배해 온 시가의 운율이 사용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사법에 관한 연구 또한 언어표현능력 향상의 교육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관한 연구는 금후 기회를 얻어 새로이 추진할 생각이다.

2-2. 의례 속의 와카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를 보면 와카가 일본문학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우타모노가타리(歌物語)의 대표적 작품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 와카를 모노가타리 속에 설정해 놓고 그 와카가 모노가타리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사건 전개를 담당하도록 구상되어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줄거리는 모노가타리의 주인공이 와카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 와카를 읊는 심정 표현에 맞추어 산문이 전개되어 가는 식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때 와카는 일상적인 산문언어에 의한 회화나 편지와는 다른 우아한 시적 언어로 되어 있으며 고조된 절실한 감정이나 의사를 담고 있다. 와카는 잘 다듬어진 시, 즉 문예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문학작품으로서의 와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본 장에서는 후자에 속하는 의례와 관계되는 와카에 관해 알아보자.

일본 와카의 효시의 등장을 엿볼 수 있는 『고지키(古事記)』,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다음과 같은 노래가 맨 먼저 소개되어 있다.

八雲立つ 八雲八重垣 妻籠みに 八雲垣作る その八重垣を

(구름 겹겹이 에워싼 겹울타리. 아내 처소로 겹울타리 만드는 그 겹울타리를)

위의 노래는 『고지키(古事記)』에서는 스사노오노 미코토(鸚鳴尊)가 구시나 다히메와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는 저택을 돌아보며 축원하는 노래이다. 산문적 세계의 일반적인 호소 기능을 벗어난 이 노래는 와카의 형식에 의존하여 그 주술적 기능에 의해 두 사람의 축복을 받는 새 출발을 기원하는 마

음을 담고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신화에 등장하는 스사노오노 미코토라는 신의 노래는 5·7·5·7·7의 단가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記紀歌謡의 中卷에 야마토다케루노 미코토(倭建命)의 노래로 소개되어 있는 또 다른 노래를 보자.

倭は 国のまほろば たたなづく 青垣 山隠れる 倭うるはし

(우리 일본은 나라가 빼어난 곳. 이어 둘러진 산 첩첩 물 첩첩한 일본은 고운 나라)

『고지키(古事記)』에서는 ‘고향을 그리는 노래(この歌は国思歌なり)’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고향을 그리워하기보다 오히려 고향 야마토를 찬미한다는 느낌을 준다. 즉 구니미(国見)의 노래이다. 구니미란 고대 농경사회에서 영적 능력을 가진 자가 봄철에 자신이 통치하는 높은 지역에 올라 오곡의 풍요와 국토의 번영을 기원하며 국토를 찬미하는 제례행위이다. 이때의 음수율은 4·7·5·4·6·8이다.

『고지키(古事記)』에는 위의 노래에 이어 야마토다케루의 다음 노래도 소개되어 있다.

はしけやし 我家 (わぎへ) のかたよ 雲居立ち来も

아아, 그리운 내 집 있는 곳에서 구름 일어나 오네

위의 것도 야마토 다케루의 노래이다. 야마토다케루는 이 노래를 읊고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며 백조가 되어 날아갔다는 이야기로 전한다. 원본에는 이것은 ‘가타우타이다(これは片歌なり)’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5·7·5조의 음수율을 가진 노래로 상대가요의 한 형태이다.

이를 통해 보면 음수율 면에서 보면 고대가요는 통일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학자인 구정호와 최충희씨는 일본시가문학의 유래를 신화의 세계로까지 끌어올려 보다 더 그 전통을 높이기 위한 조작으로 보고 있다.⁶⁾ 이에 비해 일본의 학자들은 『고지키』에 등장하는 가요는 민요와 같은 것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5·7조의 확립은 와카 자체의 발달에 수반된 현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⁷⁾, 중국 한시의 유입이 장가의 유

6) 한국일어일문학회 지음(2009), 최충희, 「한시 덕분에 태어난 일본문학- 와카」 『세계 속의 일본문학』 제이앤씨 p.147
최충희·구정호·박혜성·고한범·이현영 공저(2004) 『일본시가문학사』 태학사 p.34
「상대」를 담당한 구정호씨의 論을 참조함.

포와 동시기에 발생하므로 한시문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⁸⁾

그러면, 『만요슈(万葉集)』의 두 번째 노래에 관해 살펴보자.

2 やまとはは むらやまあれど とりよろふ あめのかぐやま のぼりたち 国見をすれば
くにはらはけぶりたつたつ 海原は かまめたつたつ うましくにぞ あきつしま やまとのくに
は

(야마토에는 산도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구야마산 위에 올라와 온 나라
내려다보니 지평 위에는 연기 피어오르고 수평선에는 갈매기 넘나든다. 아, 좋
은 나라 풍요의 나라로다)

「천황이 가구야마에 올라가 나라를 내려다보시며 지으신 노래(天皇, 香具山に登りて望国したまふ時の御製歌)」라는 서문을 보면 이 노래 또한 왕이 구니미란 의례를 할 때의 노래로 그 내용은 국가의 번영 기원과 찬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수율을 보면 장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5·7의 운율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의 『만요슈』에 수록된 거의 대부분의 노래들이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와카나 하이쿠에 등장하는 운율은 일본인들이 고대로부터 상당히 집착해 즐기고 있었던 운율의 형식이었다고 생각된다. 영문학자인 土居光知씨는 이러한 일본시가의 발생의 비밀에 관해 ‘갈대잎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며 속삭이는 것처럼 감흥의 자연스러움에서 생겨난 운율이다’⁹⁾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万葉集』 서두를 장식하는 ‘八雲立つ~’의 와카의 경우도 진위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인들이 와카의 운율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 예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고킨슈(古今集)』에 이르면 5·7·5·7·7 형식의 와카가 정착하는데 卷 20에는 「大歌所御歌」로 분류된 와카들이 배열되어져 있다. 악기 반주를 곁들여 부르는 노래들로 궁궐 내에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의례 때 사용되어지는 것

7) 青木正児氏の説. 有吉保 他6人 編集 (1993) 『和歌の本質と表現』和歌文学講座1 勉誠社 p.133

8) 高木市之助氏の説. 7)의 앞의 책 p.132

원문은 ‘古代歌謡には歌謡性を純一に保つ歌謡と読まれる歌謡とがあつて、後者は長歌という定型になるのであるが、この成立期が漢字の渡来から流布の時代とほぼ並行しているから、この定型の因子になっている五七両言句の成立に漢詩文の五、七言との関係が予想され、それは「読む」という性質に関連しておこつた一つの定型である.’로 되어 있다.

9) 土居光知氏の説. 7)의 앞의 책 p.131

원문은 ‘記, 紀歌謡及び万葉の旋頭歌のあるものは民謡の風格をもっている. 民謡は漂ふ声の歌であつて、言葉も固定せず、数十百年の間、口から耳へと伝えられ民衆の趣味に 適ひ、耳をよるこばすやうに改められ、特殊な個人的要素は失はれてゆく. これはまたある観念や過去の詩歌を媒介として生じた感興ではなく、葦の葉が風の吹くままに震へささやくやうに、感興の自然にひびく無心な調べである.’로 되어 있다.

들이 수록되어 있다. 지면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코(光孝)천황의 「다이쵸에(大嘗会)」 노래만을 소개하겠다.

1085 君が代は限りもあらじながはまのまさこの数はよみつくすとも

(그대의 시대는 한도 끝도 없으리. 넓은 해변의 모래알 수는 헤아릴 수 있어도)

이때의 ‘君が世’란 천황의 치세뿐만 아니라 수명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고코천황이 오래오래 살아 천수를 누릴 것을 축하하고 있다. 동궁이 태어날 때에도 그 기쁨을 다음의 와카를 읊어 전하고 있다.

364 峰高き かすがの山に いづる日は くもる時なく 照らすべらなり

(가스가 산봉우리에 높이 뜬 태양이 구석구석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세자 께서도 언제까지나 우리들에게 은덕을 베푸소서)

이상을 보면 와카는 신화세계 이래 일상이 아닌 통과례 등의 전통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본인들은 고래로부터 와카라는 표현 형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고센슈(後撰集)』, 『슈이슈(拾遺集)』, 『신고킨슈(新古今集)』에도 이런 비일상적인 의례와 관계있는 노래는 모두 와카의 틀을 이용해 읊어지고 있는데 이는 아키야마 켄(秋山 虔)씨의 지적과 같이¹⁰⁾ 와카가 유형적이기 때문에 공공성 자립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고 보편성까지 얻게 된 증거라고 여겨진다.

헤이안 시대 와카는 일상에서 가능한 인사나 선물 증답의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었다. 당시에 사랑하는 남녀가 첫날밤의 정사를 나눈 다음 날은 기누기누노 우타(後朝の歌)를 주고받는 등 일상어로 불가능한 인간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에 관해서는 졸론 「생활문학으로서의 와카」 일본문화학보 제32집¹¹⁾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뿐만 아니라, 『쓰레즈레구사(徒然草)』를 보면 수수께끼의 경우도

二つ文字牛の角文字直ぐな文字ゆがみ文字ぞ君は覚ゆる¹²⁾

와카를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이 수수께끼의 해

10) 6)의 앞의 책 p.20

11) 拙論(2007) 「생활문학으로서의 와카」 일본문화학보 제32집 참조

12) 神田秀夫·永積安明·安良岡康 校注·訳(1995)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方丈記·徒然草·正法眼藏隨聞記·歎異抄』 小学館 p.132

답은 ‘こいしい’이다. 현대의 소년소녀들이 주고받는 수수께끼의 경우도 이러한 운율을 사용하고 있는 예는 드물지 않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해답이다.

寒くなるほど 厚くなるもの なーに? (氷)

山で来い来い、はたけでいやいや するのは なーに? (尾花と芋の葉)

2-3. 知識과 교훈가의 운율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노래도 있다. 지인인 일본인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시절 국사공부를 할 때, 7·5조의 운율을 살려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래된 해는

一二一二と百濟から

라고 읊고 헤이안 천도는

一四五四決まる平安京

라고 읊었다고 한다. 1212이나 1454란 숫자는 우리의 단기(檀紀)와 같이 일본식의 기원년을 고려해 넣은 숫자로 西曆으로 계산하려면 660을 빼어야 한다.

한자 巳와 巳와 己의 구별도 쉽지 않았던 모양으로 다음과 같은 노래도 남아 있다.

巳(미)は上に巳(すで)に巳(や)む巳(のみ) 中程に 己(おの)れ己(つちのと)下につくなり

‘巳’의 글자획은 위에 붙고, 일찍이의 의미를 가진 ‘巳’의 글자획은 중간부분까지, 자기 ‘己’의 글자획은 아래쪽에 붙는다고, 세 글자의 획을 비교하며 노래로 설명하고 있다.

世の中は三日見ぬ間の桜かな

세상이란 덧없는 것이어서 갑자기 변화해 버린다. 그것은 아름답게 피어 있었던 벚꽃이 불과 사흘 사이에 완전히 저 사흘간 보지 않은 벚꽃과 같다는 내

용이다. 영생이 불가능한 인간의 운명,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깨달을 수 있지만 잠깐 잊기 쉬운 인생무상에 관한 보편적인 지식을 표현한 구(句)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다이헤키(太平記)』를 보면 어지러운 난세에 라쿠가키(落書)¹³⁾를 사람들 눈에 떨어뜨려 세상을 풍자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담긴 내용도 와카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賢王の横言になる世の中は上を下へぞ返したりける

(천황의 그릇된 언사로 인해 세상은 곧 혼란에 빠질 것이다)

고다이코(後醍醐) 천황 치세 때 천황의 왕정복고에 대항해 대궐문에 붙였던 풍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라쿠가키의 효력 때문인지 고다이코 천황의 왕정복고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

현실이나 일상에서 소재를 취해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싶을 때에도, 전통적 권위나 제도를 비판하고 세태를 풍자하며 인습적 터부를 과감히 깨뜨리려고 할 때는 교카(狂歌)란 형식으로 와카와 같은 음수율을 이용해 읊고 있는데 이 또한 다루는 내용만 다를 뿐 와카의 운율로 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㉔年はただくれうくれうといひながら手にとるものは 今日までもなし (再昌集)

㉕秋風の明日より吹くを身にしみてけふびんぼうの被いをする (永正狂歌歌合)

㉖無念ながらも嬉しかりけり去りかぬる老い女を人に盗まれて (新撰犬筑波集)

㉔는 ‘해마다 나이는 먹고 주세요 주세요 하는 형국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정작 손에 남아 있는 것은 없다’ 라는 노래이다. ‘くれう’ 와 ‘とる’란 대조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자조적으로 웃음까지 배가시키며 잘 전달하고 있다.

㉕는 ‘내일부터 가을바람 불어오기에 오늘 가난을 전부 털어내고자 한다’ 며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사는 서민의 세태를 와카 형식을 통해 풍자적으로 읊고 있다.

㉖는 무로마치(室町) 시대 말기의 소칸(宗鑑)의 하이카이 렌가(連歌)집인 『신센이누츠쿠바슈(新撰犬筑波集)』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원통하면서도 기뻐도다. 헤어지기 힘든 늙은 마누라를 도둑맞고서’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세속적 도의를 초월해 인습적 터부를 과감히 깨뜨린 내용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내게 하는 요소가 들어 있다.

13) 현대의 뼈라와 같은 역할을 함. 落首라고도 함. 일본어 ‘落し文’의 和製漢語.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노래가 다수 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운포이로하슈(運歩色葉集)』 등에 <道歌>란 이름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세후기에 사용된 和製漢語로 <教訓和歌>나 <教訓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4)

『신고킨슈』 『쇼쿠센자이슈(続千載集)』 에도 수록되어 있는 노래로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다.

1963 さらぬだに重きが上のさよ衣わがつまならぬつまな重ねそ(『太平記』 『新古今和歌集』)
(자신의 처의 경우일지라도 죄가 무거울진대 처가 아닌 여자와의 관계는 더욱 그렇다)

981 月かげのいたらぬ里はなけれども眺むる人のこころにぞすむ『続千載集』
(달빛 즉 진리가 닿지 않는 곳은 없지만 이는 바라보는 자의 마음에만 깃든다)

『신고킨슈』 1963의 노래는 寂然法師의 노래로 「不邪淫戒」란 제목이 붙어 있는 와카로 ‘간통을 경계하라’는 계율의 내용을 담고 있는 <教訓和歌>이다. 『続千載集』의 981의 노래는 대중불교를 연 개종자인 호넨쇼닌(法然上人)의 노래로 불교의 어려운 계율을 쉽게 풀어 와카 표현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교화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다.

<女訓集>에는 훈시와 같은 다음의 노래들도 실려 있다.15)

乱国はさはがぬさきにまず落ちよ けふあすよと見合わせずとも
(난세일 때는 시끄러워지기 전에 떠나라. 오늘 내일 미루지 말고)
継子あらばわが子をおもふころもてなをへだてなくつねにはごくめ
(의붓 아이 있으면 내 아이 같은 마음으로 격의 없이 잘 키워라)

조선시대 유학자 이황의 「도산십이곡」이란 노래곡의 서문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익히게 하여 노래하고 책상에 기대어 듣고 또한 아이들에게 이르러 스스로 노래하고 기뻐하며 춤추게 하여 거의 더러움과 인색함을 씻어버리고 느낌이 일어 녹아 통하게 하면 서로 유익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16) 이 또한 시가를 통한 감동이 실천적 삶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시가

14) 6)의 앞의 책 p.118

15) 7)의 앞의 책 p.121

16) 한국고전문학회(2001) 최재남 「士林의 생활문화로서의 詩歌活動」 『국문학과 문화』 월인 p.168

의 효용성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쯤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센류(川柳)이다. 센류는 하이쿠(俳句)와 마찬가지로 5·7·5의 정형시인데 하이쿠와는 달리 기고(季語) 기레지(切字)의 제한이 없고 일상생활의 비근한 소재를 주제로 세태를 풍자하고 가볍고 기발한 표현으로 웃음을 자아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시원을 살펴보면, 7·7음으로 사전에 제목을 제시하면 그에 맞추어 재미있는 내용으로 5·7·5음의 하이쿠 형식으로 답을 만들어 이를 투고료와 함께 응모하는 형식이었다고 한다. 교통수단과 통신이 발달한 에도시대에 크게 유행했다고 하는데, 응모한 내용에 대해 최우수부터 등급을 매겨 상금과 함께 한 장의 인쇄물로 응모자들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고 한다.¹⁷⁾ 그 중 유명한 몇 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役人の子はにぎにぎをよく覚え
 (관료의 아이는 잼잼하는 법(돈 세는 법)을 금방 배운다)
 孝行のしたい時分に親はなし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을 때는 부모가 없다)
 かまきりはおんぶしようの手つきなり
 (사마귀 녀석은 어부바하는 자세로구나)

2-4. 중세의 가요

헤이안 후기 고시라카와 법황은 당대의 최신 유행가를 모아 『료진히쇼(梁塵秘書)』란 책을 편찬하여 스스로 유행가에 대해 무척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수기로 남기고 있는데 매우 재미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노래라는 것은 문자도 있고 가락도 있고 춤도 동반하기 때문에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당대 많은 사람을 매료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26의 노래를 보자.

| | |
|--------------|--------------------|
| 仏は常にいませども | 부처님은 늘 계신다고 하지만 |
| うつつならぬぞあはれなる |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니 안타까워라 |
| 人の音せぬ暁に | 인기척 하나 없는 새벽녘에 |
| ほのかに夢に見えたまふ | 아련히 꿈속에 나타나시네 |

7·5조 4구의 형식을 갖고 있다. 다음에 세속적인 가요 342번의 경우도 살펴보자.

17) 오오카 마코토 지음 신유미 옮김 (2005) 『이야기 일본문학사』 경인문화사 p.391

| | |
|----------------|-------------------------|
| 美女うち見れば | 아름다운 미녀를 보면 |
| 一本葛にもなりなばやとぞ思ふ | 한그루 칙덩굴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
| 本より末まで縊られればや | 즐기부터 이파리까지 칭칭 감아버리고 싶다. |
| 切るとも刻むとも | 잘라버리려 해도 끊어버리려 해도 |
| 離れ難きはわが宿世 | 도저히 끊어버릴 수 없는 내 숙명이여 |

칙덩굴이란 언제나 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다. 여자를 나무에 비유해 즐기부터 잎새까지 칭칭 감아버리고 싶다. 그렇게 하면 잘라버리려 해도 찍어버리려 해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잘려 나가지 않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아름다운 여자에 반한 자신의 모습을 칙덩굴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 노래 또한 7·5조, 7·7조를 벗어난 7·8조 음률도 보이지만 지아마리(字余り)를 감안하면 전통음수율을 크게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가요집에 수록된 유명한 노래 359의 음수율에 관해서도 살펴보자.

| | |
|--------------|-------------------|
| 遊びをせんとやうまれけむ | 놀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인가 |
| 戯れせんとや生まれけん | 장난하기 위해 태어난 것인가 |
| 遊ぶ子供の声聞けば | 놀고 있는 아이의 목소리 들으면 |
| わが身さへこそ揺るがるれ | 나의 몸마저 저절로 들썩인다 |

이 노래는 오래 전부터 친진난만한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것을 보고 성인들도 아이들처럼 흥이 나서 절로 부르는 노래로 해석되어 왔으나 다른 설도 있다. 내용에 관한 해석이야 어쨌든 간에 이 노래 또한 7·5조의 음률을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5. 근대의唱歌와 계몽가

창가라는 음악용어가 정식으로 사용된 것은 1872년 일본의 교육학제에서였다. 최창익이 발행 편집한 책에 의하면 창가란 서양의 ‘Song’ ‘Lied’의 뜻을 한문으로 옮길 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그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¹⁸⁾

-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같이 부를 수 있다.

18) 한국대중예술문화연구원 편찬 (2003) 『한국대중가요사』 한국대중예술문화연구원 p.91

- 음역이 넓지 않고 리듬이 단순하다.
- 노래의 가락(멜로디)에 중심을 두고 반주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 곡조의 길이가 보편적으로 짧고 가사의 반복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문부성 창가(文部省 唱歌)가 메이지 초기에 등장하고 소학교 교재로 창가독본(唱歌 讀本)이 편찬되면서 ‘창가’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친숙해져 갔다.

창가의 발단은 1881년에서 1884년 사이에 나온 <문부성 음악 취조계 편찬>에 의한 『소학창가집(小学唱歌集)』으로 시작되는데, 메이지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래의 주제는 부국강병이었다. 아이들은 하나의 소국민(小国民)으로서 커서 국가를 위해 일할 인재이다. 당시 일본은 황국사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스메라노 미쿠니(皇御国), 즉 ‘천황의 나라’라고 하며 천황의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는 사상을 소학 창가를 통해 열심히 가르쳤다. 중세시대에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겐 불교의 교의를 설교하기 위해 이마요(今様)가 위대한 힘을 발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가는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고 믿었고 문자는 몰라도 노래는 얼마든지 암송해 그들을 세뇌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창가는 세간에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역할을 했다. 군국주의의 이데올로기만이 아니고 어린이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는 사상을 주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메이지 정부의 사상이었다. 즉 충군·애국(忠君·愛国) 사상에 덕목교육까지 창가의 장치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반딧불이(蛍の光)」 「오상의 노래(五常の歌)」 「우러르면 존귀하다(仰げば尊し)」 같은 것은 전부 이 시대의 산물이다. 「蛍光」 노래의 경우 1절과 2절은 이데올로기는 관계없는 내용으로 지금도 애창되고 있지만 3절과 4절은 큐슈와 오키나와 홋카이도와 치시마까지 우리 일본을 지켜야 한다는 사상을 노래하고 있다.

그 중 「오상의 노래(五常の歌)」에 2절까지의 가사를 살펴보자.¹⁹⁾

| | |
|---|---|
| 一 野辺の草木も 雨露の めぐみに育つ きまみれば 仁てふものは 世の中の 人のこころの いのちなり | 들가의 초목도 비이슬의 덕분에 자란다 그 모습 보면 <인> 이란 세상의 사람들 마음의 목숨이다 |
|---|---|

19) 山東功(2008) 『唱歌と国語』 講談社選書メチエ p.25

二 飛驒のたくみ (工) が うつ墨に 공역(公役) 목수가 그리는 먹물의 선에
 まがり (曲) も なほる さまみれば 구부러진 것도 바로되는 모습을 보면
 義といふものは 世の中の <의로움>이란 세상의
 人のこころの 条理なり 사람들 마음의 논리이다

여기서 「오상(五常)」이란 「仁·義·禮·智·信」을 말한다. ‘들가의 초목도 비나 이슬을 맞으며 자라는 것과 같이 ‘인’이란 사람들에게 목숨과 같고, ‘의(義)’란 ‘사람들의 마음의 논리이다’ 라는 내용이다. 가사를 보면 「仁·義·禮·智·信」이란 덕목에 곡을 붙여 암기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음악이라는 도구를 빌어 수신(修身)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7·5조의 운율을 사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두 전쟁을 겪으면서 소학 창가에는 군가(軍歌)도 늘어난다. 소학창가집은 군가집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군가가 많다.

이 때에 생겨난 サトウ・ハチロー 작사의 곡 <勝利の日まで>의 곡 1절만을 소개해 보자.

| | |
|--------------|-------------------|
| 丘にはたたくあの日の丸を | 언덕에 나부끼는 저 일장기를 |
| 仰ぎながめる我らのヒトミ | 우러러보는 우리들의 눈동자 |
| いつかあふるる感謝の涙 | 언제인가 흘러넘치는 감사의 눈물 |
| 燃えてくるる感謝の涙 | 활활 타오르는 감사의 눈물 |
| 我らはみんな力の限り | 우리들 모두의 힘이 있는 한 |
| 勝利の日まで勝利の日まで | 승리의 날까지 승리의 날까지 |

昭和19年(1944년), 후반에 사이판섬이 미군에 의해 점령되었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노래이다. 계속 전승을 자랑한 세계 최대의 전함 무사시(武蔵)가 필리핀 바다에 침몰하고 인도 공격의 인파-루(インパール)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태평양 섬과 페리류 섬을 공격, 필리핀 탈환을 하려는 미군이 레이테 섬에 상륙해 동경은 다시 대공습을 받는 등 패색이 짙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용솨음치는 애국심으로 전쟁에서 기어히 승리해 내겠다는 군민 혼연일체의 뜻을 고무시키고 있는 내용인데, 7·5조로 되어 있다.

같은 시기에 번역시 소개가 주를 이루는 『신체시초(新体詩抄)』와 같은 작품이 소개되고,²⁰⁾평론가·번역가·시인·소설가로 활동한 우에다 빈(上田敏

20) 外山正一·矢田部良吉·井上哲次郎 同撰 (1884) 『新体詩抄』 이 책에는 번역시가 주를 이루고 창작시는 다섯 편밖에 실리지 않았다. 편집한 사람 중 시인은 한 명도 없고 식물학자

;1874~1916)이 1905년에 『해조음(海潮音)』을 간행되는데, 서구의 짧은 시들을 번역할 때, 우아한 옛말이나 전통적인 민요조를 이용하고 있다. 빈의 번역 중에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독일 시인 칼 붓세(Karl Busse; 1872~1918)의 시 「산 너머 저편(山のあなた)」의 예를 들어 보자.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원작은 생략하고 일본어와 우리말 번역만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 | |
|-------------|----------------------|
| 山のあなたの空遠く | 산 너머 저편 하늘 저 멀리 |
| ‘幸せ’住むと人のいふ |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지만 |
| あ、われ人と尋ねゆきて | 아, 나도 남 따라 행복을 찾아갔건만 |
| 涙さしぐみ、かへりきぬ | 눈물만 머금고 돌아 왔다네 |
| 山のあなたになほ遠く | 산 너머 저편 하늘 더욱 멀리 |
| ‘幸せ’住むと人のいふ |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지만 |

일본에서 널리 애송되어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되었기 때문인지 우리에게도 많이 친숙한 시인데, 정작 독일에서는 시의 원작도 원작자인 칼 붓세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2류 시인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시가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애송된 이유는 무엇일까. 행복에 배반당하면서도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정서의 보편성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름 아닌 물 흐르는 듯한 리듬감, 특히 일본의 경우 7·5조의 운율의 아름다움에 있다고 여겨진다.

빈의 번역시는 전체적으로 원시(原詩)의 행을 쫓아서 거의 충실하게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때로는 원시에 없는 말을 첨가하고, 때로는 어구와 어법을 바꿔서 작자의 감동과 주제를 전달하려는 데에 무게를 두었다고 하여 오히려 창작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자말을 의식적으로 피하여 부드러운 순 일본어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7·5조의 리듬과 어우러져 원시보다 더욱 감미로운 서정성을 드러내려 한 것 때문이라는 평도 있다. 21)

사회학의 원리를 7·5조와 5·7조로 만들어 노래한 것도 있는데, 긴 것들이 많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세카이구니즈쿠시(世界国尽)』가 제일 먼저 등장한다. 1869年(明治2年) 초겨울에 발행된 책으로 세계지리의 입문서이다. 먼저 서문을 인용해 보자.

와 철학자 그리고 사회학자이다. 이들이 과거의 와카로는 새로운 시대의 사상은 노래할 수 없다고 하여 서양의 시를 보고 흉내내어 7·5조와 5·7조로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메이지 30년 정도까지 시가문예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추구하는 계몽사상의 요새역할을 한 셈이다.

21) 최충희·구정호·박혜성·고한범·이현영 공저(2004) 『일본시가문학사』 태학사 p.467

世界は広し万国は、おほしといへど大凡（おおおよそ）、五（いつつ）に分けし名目（みようもく）は、亜細亜（アジア）、アフリカ（アフリカ）、歐羅巴（ヨーロッパ）、北と南の亜米利加（アメリカ）に、堺（さかい）かぎりて五大洲、太平洋は別にまた、南の島の名称（となえ）なり

1장은 아시아, 2장은 아프리카, 3장은 유럽, 4장은 아메리카, 5장은 남아메리카와 태평양 제도 및 오스트레일리아, 6장은 지리학을 천문·자연·지리의 세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모든 페이지에 걸쳐 지도가 소개되어 있으며 세계 각 지역의 지리를 도해하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문을 내용을 살펴보면 지리뿐만 아니라 역사를 소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1장의 아시아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아편전쟁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다음의 유럽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자.

土地の広袤（ひろさ）を較（くらぶ）れば、五大洲の末なれど、狭き国土に空地（あきち）なく、人民恆（つね）の産を得て、富国強兵天下一、文明開化の中心と、名のみにあらず其实（そのじつ）は、人の教の行届き、徳誼（とくぎ）を修め知を開き、文学技芸美を尽し、都鄙（みやこいなか）の差別（しやべつ）なく、諸方に建（たつ）る學問所、幾千万の數知らず。

라고 산업혁명의 기운으로 한창 번창해가는 유럽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문명개화의 요건에 대해 자기주장을 펴고 있다.

彼（か）の産業（すぎわい）の安くて、彼（か）の商売の繁昌し、兵備整ひ武器足りて、世界に誇る泰平の、その源を尋（たずぬ）るに、本（もと）を務（つとむ）る學問の、枝に咲きたる花ならん。花みて花を羨（うらや）むな、本なき枝に花はなし。一身（ひとり）の學に急ぐこそ、進歩（あゆみ）はかどる紆路（まわりみち）、共に辿（たど）りて西洋の、道に榮（さかゆ）る花をみん

이 노래의 전후(前後)를 살펴보면 <세계는 넓고 만국은 많고도 많다>로 시작해 세계의 모든 대륙, 그리고 주요 국가의 인구 지리 역사 산물 현재의 문명도, 특히 철도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또 각 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기운으로 넘쳐나고 있는지 아니면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청일전쟁 전이므로 중국에 대한 멸시의 감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의 문장까지도 7·5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직 메이지 초기이고 서당과 같은 곳에서 글을 배운 아이도 적었기 때문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문맹인들도 이렇게 하면 암송하기 쉬웠을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게이오 기쥬쿠(慶応義塾)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1958년에 이 가사에 곡을 부쳐 노래로 완성했다는 일이다. 1972년에는 구와하라 사부로(桑原三郎)씨가 이를 초등학교생이 외워 부를 수 있게 개편했다고 한다. 26절로 된 가사로 전곡을 부르면 세계를 일주한 셈이 된다. 22)

이렇게 살펴다 보면 일본에서는 뭔가 새삼스럽고 특별하게 표현하려고 애쓰다 보면 5·7이나 7·5조와 5·7조의 운율을 타게 되고 이는 다름 아닌 와카나 하이쿠의 운율의 영향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3. 끝머리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속담이나 광고문에 전통시가의 운율인 5·7이나 7·5조, 7·7조의 표현이 많음에 확인하고 이러한 운율이 일본인의 생활 속에 어떻게 뿌리내리게 되었는지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문예적 성격이 강한 시가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된 가요집으로 알려진 고지키에서는 결혼축가, 『만요슈』나 『고킨슈』에서는 궁정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의식의 경우에도 와카의 운율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지식이나 교육의 중요한 전달도구가 되기도 하고, 세태 풍자, 해학 등의 정서를 드러낼 때에도, 중세 모던풍의 가요에서도 전통시가의 운율을 사용하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창가와 군가나 지리입문교재 등에서도 애용하고 있다.

와카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음악처럼 음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음악에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특별히 암기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운율을 가진 노래로 들으면 잘 외워지며 암기의 효과는 배가된다. 의기소침했던 마음은 유쾌해지고 심리적인 안정과 위안을 얻기도 한다. 그리고 연대감을 느낄 것이다.

아직도 일본의 주요 일간신문의 석간,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석간신문에는 어느 신문 할 것 없이 독자들이 응모를 한 단카·하이쿠·센류 등의 작품이 실려 있으며 이들 작품에 대한 평가 및 심사 소감이 실려 있다. NHK의 교양 프로그램에도 하이쿠 강좌가 있고, 각 지방의 문화교실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강

22) 桑原三郎(1979) 『諭吉 小波 未明—明治の児童文學—』慶應通信 p.89~117

좌가 하이쿠와 관계가 있는 시가문학의 창작이라고 한다.

2009년 5월 런던에서 지하철 출·퇴근자를 대상으로 트위터 시 짓기 대회를 열면서 ‘위대한 영국의 여름’이라는 시제(詩題)를 내주고 <일본의 한 줄짜리 단시(短詩)인 하이쿠 형식으로 쓰라>고 지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일본문학의 양식인 하이쿠를 끌어들이는 배경에는 일본의 국력 부상과 함께 글로벌화된 하이쿠 형식의 저변 확대현상이라는 원인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보다는 하이쿠가 지닌 긴장과 압축미라는 특징을 가진 문학형식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정감, 연대감을 느끼게 하는 운율, 내용을 압축해 전달하는 절제미, 말 사이의 간격을 중시하는 기레지(切れ字) 등에 그 인기의 비결이 있을 것이다. 촌철살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세상이 바빠지고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 이런 운율을 가진 정형의 표현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된다.

【参考文献】

- 오카 마코토 지음 신유미 옮김 (2005) 『이야기 일본문학사』 경인문화사
 최충희·구정호·박혜성·고한범·이현영 공저(2004) 『일본시가문학사』 태학사
 한국고전문학회(2001) 『국문학과 문화』 월인
 한국대중예술문화연구원 편찬 (2003) 『한국대중가요사』 한국대중예술문화연구원
 한국일어일문학회 지음(2009) 『세계속의 일본문학』 제이앤씨
 有吉保 他6人 編集 (1993) 『和歌の本質と表現』 和歌文学講座1 勉誠社
 池田弥三郎編(1976) 『言葉の遊びと芸術』 大修館書店
 桑原三郎(1979) 『論吉 小波 未明-明治の児童文学-』 慶応通信、1979年
 朴丹香(2001) 『庶民文芸としての「諺」研究』 久留米大学大学院比較文学研究科 博士学位論文
 藤井乙男(1978) 『諺の研究』 講談社
 山東功(2008) 『唱歌と国語』 講談社選書メチエ
 小沢正夫·松田成穂 校注·訳(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古今和歌集』 小学館
 小島憲之·木下正俊·東野治之 校注·訳(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万葉集』 小学館
 神田秀夫·永積安明·安良岡康 校注·訳(1995)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方丈記·徒然草·正法眼藏随聞記·歎異抄』 小学館

要 旨

本稿では日本人が好んで使用している 和歌、俳句の韻律である5・7や7・5調が多用されていることに気づき、これらが日本人の生活とどのように関連し、日本人の生活の中にかに根を下ろしたか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

その結果、最古の古代歌謡である『古事記』『古今集』『万葉集』でも、祝婚歌や国見、長寿お祝いなど宮廷で行われている儀式の中でも和歌が詠ま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さらに、知識や教育の重要な伝達の道具になったり、風刺や諧謔の情緒を表す時や中世の今様の歌謡などでも伝統詩歌の韻律を使用し、近代に至っては唱歌や軍歌、社会科目の教科知識の伝授にも応用されていることが確かめられた。

現代でも主要日刊新聞の夕刊誌には短歌・俳句・川柳の投稿欄が常設されており、国営放送であるNHKの教養番組で一番人気があるのは俳句講座であり、その形式を用いて作詩大会を開く外国も存在する。これは何よりも俳句の持つ韻律と緊張と凝縮美という特徴を持つ文学形式という点に注目をしたからであると思われる。安定感、連帯感を感じさせる韻律、内容を圧縮して伝えようとする節制美、言葉の言葉の間を重視する切字にその人気の秘訣があるのであろう。寸鉄殺人という言葉もあるが、世の中が忙しくて複雑になるほど、人はこうした韻律を持った定型の表現に魅力を感じるだろう。

キーワード：和歌・俳句・韻律・日本人の言語生活・凝縮美・定型

투 고 : 2010. 2. 28

1차 심사 : 2011. 3. 19

2차 심사 : 2011. 4. 2